

퍼블릭 어페어즈의 필요성

Necessity for public affairs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촛불 민심이 국회의 국정최고책임자 탄핵이라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향후 민주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언론과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으로 밝혀진 그간의 비상식적인 국정수행 방식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상실의 원인 중 하나는 비선 실세(秘線 實勢)라고 지칭되는 주변 국소수 인물들과의 소통만이 존재했고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내부 소통과 함께 조직의 가치를 연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진정성 그리고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둔 소통이 필요합니다.

민간에서는 사회적 소통을 위해 '퍼블릭 어페어즈(Public Affairs)'를 활용합니다. 퍼블릭 어페어즈는 '기업과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정책이 최대한 우호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펼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기관이나 국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미지·이슈 광고 같은 홍보 활동과 사회적 기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익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사회는 갈수록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이익단체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방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익 추구 활동의 행태는 여전히 은밀하거나 집단적인 세(勢) 과시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큼니다. 은밀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집단적인 과시는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투명화,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의 상승, 이해관계의 다양화로 인해 이제는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대립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과정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퍼블릭 어페어즈는 투명성 확보, 체계적 활동, 사회적 기여 등 세 가지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은 체계적 인식 하에 활동을 해야 하고 투명하지 않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금품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퍼블릭 어페어즈 활동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이익 추구의 수준과 수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 즉 갈등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건축사들도 시장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퍼블릭 어페어즈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